

조류 인플루엔자도 괴질 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어린 소녀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려 2월 22일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소녀의 아버지도 같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바이러스가 조류를 넘어 인간 사이에 전염되는 형태가 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만일에 대비해 세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캄보디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11세 소녀가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수도 프놈펜 남쪽 프레이벵 지방에 살던 소녀는 지난 16일 기침과 인후통, 섭씨 39도의 고열 증세를 보여 지역 병원을 거쳐 프놈펜의 국립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2014년 이래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라고 밝혔다. 소녀와 가까이 지낸 12명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 아버지만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캄보디아 정부는 밝혔다.

사람이 H5N1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

된 사례는 1997년 홍콩에서 처음 나왔다. 이후 전 세계에서 900명 이상이 감염돼 절반이 사망했다. 캄보디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14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56명이 H5N1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려 37명이 사망했다. 모두 병든 조류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사례였다.

최근에는 포유류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칫 인간을 포함해 포유류 사이에 퍼질 수 있는 변이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유럽과 미국, 남미에서 여우와 고양이, 흰족제비, 물개, 돌고래, 미국 너구리, 회색곰, 바다사자가 잇따라 감염됐다.

전문가들은 아직 H5N1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 사이에 퍼지는 형태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영국 글래스고대의 바이러스학자인 마시모 팔라리니 교수는 지난 24일 과학연론 지원기관인 사이언스미디어센터에 “최근 사람 H5N1 발병 사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를 통한 것이며, 인간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질 가

능성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가끔이나 야생 조류가 대규모로 감염됐음에도 사람 감염 사례가 제한적이고 증가 추세도 아니라는 점도 전문가들이 변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근거이다. 그렇지만 언제든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영국 노팅엄대의 바이러스학자인 조너선 볼 교수는 사이언스미디어센터에 “바이러스가 다양한 포유류에 감염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인간 간 전염 위험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지만, 조류와 포유류 집단에서 인플루엔자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동물 감염 사례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사이언스카페] 캄보디아 소녀, 조류인플루엔자로 사망...“세계적 감시 필요” 2023-02-27 기사에서 발췌 요약하여 인용하였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우주에서 가장 강한 신: 나”

우주에서 제일 강한 신이 '나'라는 의식이다.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주를 이겼다가 되고,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겼다가 되는 것이다.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나'라는 의식이 바로 붉은 용 마귀다.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기고, 누구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나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될 때 비로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나'는 영생활 수가 없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유연성, 근육량 그리고 근육의 질이다. 고령자일수록 하루라도 더 빠르게 부지런하게 꾸준히 근력운동을 하여 근육을 강화해 보실까요? 근육이 있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활동이 자유로우며 활발한 체력으로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파워 스트레칭!!!

① 앉아서 몸 비틀기~ : 앉은 자세에서 한쪽 팔로 반대편 허벅지를 잡고, 몸을 비틀어 뒤를 본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② 턱 밀어 올리기~ : 두 손을 깎지 낀 상태에서 엄지를 턱 밑에 대고 턱을 위로 밀어 올려준다. 10초 유지. 5회.

③ 엉덩이와 팔 들기~ : 양다리를 옆으로 확장하고 앉아서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고, 왼손은 뒤로 쥘고, 엉덩이를 앞으로 밀듯이 하면서 위로 들어 올린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④ 한 다리 잡아당기기~ : 누워서 한쪽 다리를 잡아당겨서 가슴 앞으로 안으면서 머리를 무릎에 댈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 ①



동작 ②



동작 ③



동작 ④

소 울음소리가 나는 소사는 심령을 변화시켜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니라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21회

未運論말운론

始終良野素沙地 시종간야소사지
毛童所望怨無心 모동소망원무심
三南第一吉星地 삼남제일길성지
月下彈琴牛鳴聲 월하탄금우명성
脫劫重生變化處 탈겁중생변화처
執後按生靈舍 집행안생령합
忍不耐而先入運 인불내이선입운
患者貪利目前禍 우자탐리목전화
世人何事勝己厭 세인하사승기염
天意拒逆狼狽事 천의거역패사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마지막 천지공사(중천中天)의 시작과 끝맺음은 우성인이 계시는(우성재야牛性在野) 소사 땅이니라.

이를 모르는 자는 머리털이 보송보송한 철부지 같은 중생이라 바라는 바 죽 음밖에 없구나. 간(良)은 동북방이요 조 선은 간방에 속한다.

소사 땅은 삼남(남조선) 제일의 길성이 비치는 곳이며(구세주 하나님이 좌정하신 6도8궁 정도령이 계시는 곳) 고요한 달빛 아래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소 울음소리(정도령의 진리 말씀)가 나는 곳이며 심령을 변화시켜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하며 저물대를 잡듯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 새 생명의 영으로 합일되도록 하는 곳이니라.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 선입자의 운이라 어리석은 자가 목적인 이익을 탐하다가 화를 당하는 격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을 싫어하는가? 그런 사람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 낭패를 보리라.

나 자신이 마귀임을 알아야 한다. 나



라는 의식이 마귀이다.

見人出去 견인출거
打胸哀冤不吉兆 타흉애원불길조
天定計投不足日 천정계투부족일
飛火落地人生滅 비화락지인생멸
未常天心無怨恨 미상천심무원한
人心不還自取禍 인심불환자취화
三人合日春心生 삼인합일춘심생
道不覺而怨無心 도불각이원무심

사람들이 신천촌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나가지 말라며 애원하다 시피 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니라. 하늘이 정해준 수가 부족한 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인생들이 멸하게 되느니라.

천심은 원한이 없는데 인심(人心)이 천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즉 옛 습관(舊習)을 고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니 스스로 취한 양화이니라.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영생활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이치를 가진 도(영원한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죽으리라. 三人合日(삼인합일)은 춘(춘)의 파자.

太神歲壬申乙巳運 태신세임신을사운
百五而七四始末 백오칠사시말
當未運 總論者 당말운 總論者

必先一小生 필선일소생
盜賊者必先凶 도적자필선흉
半死七交 반사비교
保命在於三角山下半月形
보명재어삼각산하반월형
保身者在於四口體合
보신자재어사구체합
在官者不水靑直勤 怨無心也
재관자불수청직근 원무심야
害國者 陰轉陽 強亡柔存
해국자 음전양 강망유존
染色者誰 無色者誰 염색자수 무색자수
存亡興敗必見此色 존망흥패필견차색

조선왕조의 운은 태조(이성계)가 등극한 임신년(1392년)부터 을사년(1965년)까지이며 574년(사철군왕 28대 임금)까지 이니라.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은 하와이로 1960년(경자년)에 망명하고 1965년(을사년)에 서거함으로써 이씨 왕운은 끝났다. 이승만(李承晩)이

라는 이름에서도 이씨 왕운을 계승하나 마지막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말세의 운에는 천륜과 인륜을 끊는 자는 반드시 먼저 죽으리라. 일소생(一小生)은 불생(不生)의 파자.

도적질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흉하니 반죽음을 당하리라.

목숨을 보전하는 길은 삼각산하반월형인 마음 심(心)에 있으며 몸을 보전하려는 자는 사구체합 즉 입 구(口)자가 네 개 합쳐진 발 전(田=心田=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자에 그 길이 있느니라. 관직에 있는 자가 청렴, 정직, 근면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해롭게 하는 자도 죽으리라.

음의 세상(마귀세상=죄악세상)이 양의 세상(하늘나라)으로 전환되니 강한 자는 멸망하고 운운한 자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세속에 물든 자 누구며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누구인가? 사는지 죽는지 흥하는지 패하는지는 마음에 물든 색(세속에 물 들었는지 아닌지)을 보면 반드시 알게 되리라.

백영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